

社說

국가고시제

국가고시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고시제에 대한 논의는 고시제 자체에 대한 논의와 고시제 운영에 대한 논의로 나뉘어 있다. 고시제 운영에 대한 논의는 고시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의와 고시제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로 나뉘어 있다. 고시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의는 고시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의와 고시제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로 나뉘어 있다.

學會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학회의 활성화는 학계의 발전과 연구의 진보를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학회들은 학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회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학회들의 운영 방식과 회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학회들의 운영 방식은 학회들의 운영 방식과 회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民族의主義를 究明해야 한다

민족의主義를 究明해야 한다. 민족의主義는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민족의主義를 究明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민족의主義를 究明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李永榮 著

時事論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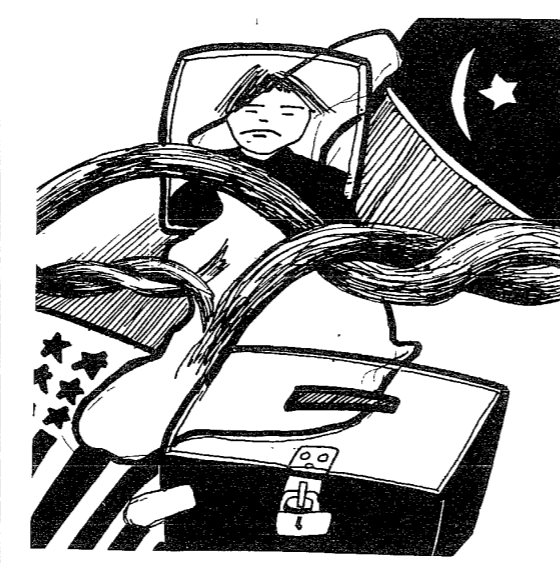
南·北총리 회담제의와 한반도 통일의 길

남·북총리 회담제의와 한반도 통일의 길. 남북총리 회담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남북총리 회담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남북총리 회담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체제모순은 폐의 統一논의지양을

偏向的親美·親日 외교노선이 본단심화

체제모순은 폐의 統一논의지양을. 체제모순은 폐의 統一논의지양을. 체제모순은 폐의 統一논의지양을. 체제모순은 폐의 統一논의지양을. 체제모순은 폐의 統一논의지양을.



大學問話



大學問話. 박주식. 박주식은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해 온 교수이다. 그의 연구 분야는 현대사학이다. 박주식은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해 온 교수이다. 그의 연구 분야는 현대사학이다.

朴敎秀

朴敎秀. 박교수의 연구는 현대사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그의 연구는 현대사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그의 연구는 현대사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주식회사 **보나비**

참, 잘나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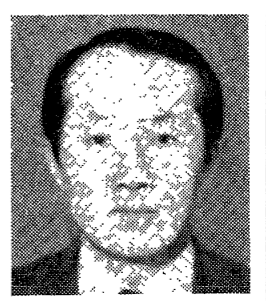
'87년도를 주름잡을 水性볼펜의 왕!

◇분자생물학 심층연구로 무한한 가능성 모색

유전공학에 의한 「웍신」 생산의 길 열다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 분자생물학 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 분자생물학 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 분자생물학 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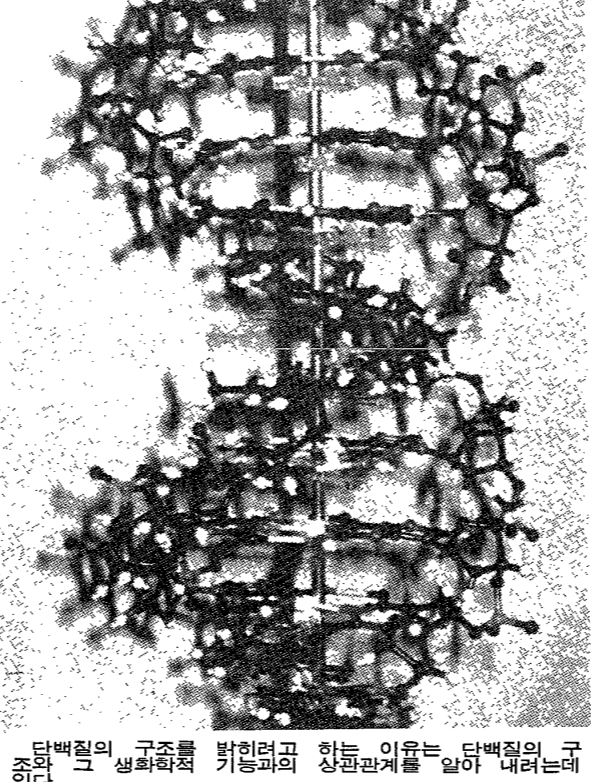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 분자생물학 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 분자생물학 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 분자생물학 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尹 柱 億
〈영국대 교수·생화학〉
영국대 교수인 이씨는 유전공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遺傳子가 단백질의 설계도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 분자생물학 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 분자생물학 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 분자생물학 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단백질 구조의 설계도인 유전자의 구조를 보여주는 전자현미경 사진

국내 최초로 단백질 구조 결정방법 확립

단백질 구조 결정 방법의 확립은 분자생물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 연구진이 최초로 이 방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했다고 발표했다.

鹿野苑

「**有 罪(?)**」
이 단행본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 단행본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 단행본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세계를 무대로, 21세기의 주역으로

첨단기술, 첨단경영으로 세계 42위에 오른三星 —
당신과 함께 세계를 무대로, 21세기의 주역으로
함께 전진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세대로 불리워지는 21세기 —
21세기는 우리의 가능성에 큰 기대를 갖고 다가옵니다.
전세계 50대 기업중 당당 42위로 뛰어오른 삼성은
젊은 인재와 함께 세계를 무대로, 21세기의 주역이 되는 데
힘찬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 컴퓨터, 평문신, 유전자공학, 항공우주산업,
신소재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삼성과
패기가 넘치는 당신에게 기대를 거는 21세기를,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세기로 만들어갑시다.

本校 부설연구소 現況

이날 대회의 뒤에는 본 연구소의 연구실과 실험실, 그리고 연구원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실에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주제와 앞으로의 연구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연구원들의 생활실태에 대해서는 연구실의 환경, 연구장비, 연구원들의 생활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문적 체계화의 主體역할을"

거의 연구업종의 70%가 연구개발업종으로

대한연구개발업종은 1987년 1월 1일 현재 연구개발업종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거의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權利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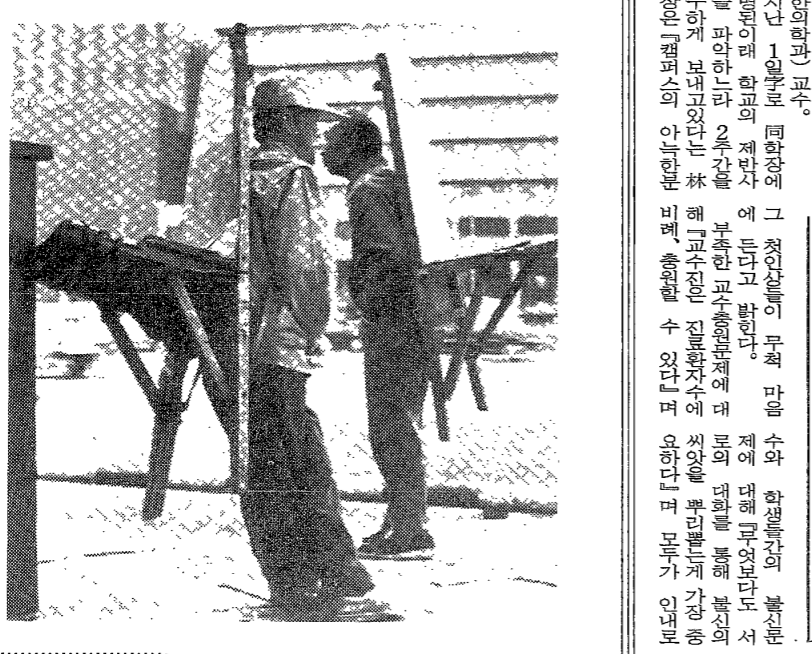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林鍾國 氏

면학분위기는 학생들 스스로 조성해야...

면학분위기는 학생들 스스로 조성해야...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메라 전시회

카메라 전시회...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적인 토론수련의장 필요

계속적인 토론수련의장 필요...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계층 전진

전국 계층 전진...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기구 입장표명에 "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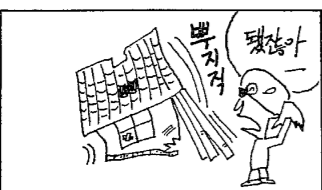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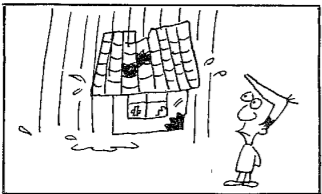
각기구 입장표명에 "금금"...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들 공인 생활이

다들 공인 생활이...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업종이 연구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로니

오 할 <32>



마음의 철학 이기영

본교 인철과 교수인 이기영 교수가 KBS 청소년 철학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강의한 「마음의 철학」 강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교리의 이해를 위해 책으로 펴냈다. 10편의 주옥같은 내용으로 꾸며진 이 책을 통해 좀 더 심오한 진리들과 만날 수 있는 진리의 안내서이다.

<정우사출판·168면·2천3백원>

내가 두고 떠난 아이들에게 김진경

이 책은 80년대 들어 「민중교육」 사건 등 여러 사건으로 해체되어 있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주는 교단 밖에서의 강의 모음이다. 심성보, 고광현, 이철국 등의 해직교사들은 이 책을 통해 교육과 삶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토론했으며 교과서 위주로 진행되는 인성교육을 지양하고 사제간의 인간적인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풍문지출판·284면·3천원>

사람과 전쟁의 낯과 밤 김태연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의 구체적인 삶과 투쟁에 관한 이 책은 작가가 고발하는 그 내용의 상상성을 초월하는 충격과 생생한 현장성으로 말미암아 감명과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도로 압축되고 상징적인 시적 언어의 독특한 문체 역시 상황의 절박함과 진실성을 보장해준다.

<한길사출판·237면·2천8백원>

두번째 再會

고개를 숙이고 철필 거리며 웃음 잃어 버린 처지가 보였다. 철사를 같은 머리카락 사 이로는 50대로 밖에 볼수없는 흰 머리가 바람에 날려갔다. 풍광 한 그 키에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고동색 가발, 콧물과 눈물이 질질 흐르는 모습은 웃음이 아닌 아픈 한숨이 되어 가

던날 시험을 치루었다. 그리고는 나의 합격통지서와 함께 그의 불합격 소식을 겸해서 날아왔다. 그후로 그의 소식도 끊어졌다. 캠퍼스에 푸르게 돌아오는 나뭇잎과 잔디의 신선함은 지난날을 아련한 추억으로 돌리게 하는데 이 책은 그 추억을 되새김질해 준다. 또 다시 그를 본것은 ××지하

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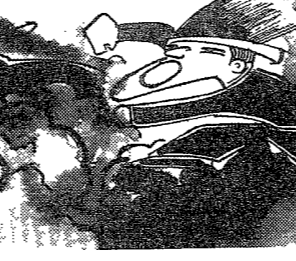
숨을 몰려왔다. 꼭 주름진 얼굴 때문만은 아니었다. 『야! 촌놈 오만한단이다.』 『어! 이게 누구야, 아아 너 우리 학교에 들어왔구나. 그런데, 이 런데서 만나다니! 이럴수가 있는 거냐.』 그는 나를 보고 촌놈이라고 했

었다. 우리의 처음만남은 재수생시절이었다. 찬바람이 가시지않은 늦겨울에 우연히 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모른듯이 허우해보였던 서로의 마음속에 봄의 따스함을 불어넣어 우정을 싹트게했던 것은 수학을 못한다는 정말 우울한 공통점 때문이었다. 하늘이 온통 잿빛으로 질어 가

“돌을 던져야 하는 아픔을 깨닫기에는 진통이 너무도 컸었다. 아직도 내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 같구나.”



침 입구에서였다. 풍요롭게도내가 밤을 걸은것이 그 친구였다. 눈에 입대 했다는 말은 누구 한테서나 들은적이 있지만 이리서로 만났을지는 몰랐다. 짧은 상고머리, 짙은 배지색 갈바, 경직된 언어 모던것이 거부감으로 다가왔다.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확인하고 확인한 후에야 악수를 나누었다.



다. 차라리 주먹으로 해결 했으면 됐을 것이다. 후회했다. 그와 나 사이에는 무섭고 커다란 벽이 하나 있었다. 사회구조는 친구간의 의리보다도 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친구나 나 자신도 보이지 않는 사회구조의 거대한 벽을 뛰어 넘을수 없었다.

밤을 탁자위로 떨어졌다. 나는 휴지를 꺼내어 가만히 상처를 닦아준다.

『촌놈아 나를 비웃지 말아다오. 돌을 던져야 하는 아픔을 깨닫기에는 진통이 너무도 컸다. 많은 날을 생각하고 고민해왔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가 없구나. 비열한 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것 같긴하다. 삶이 부끄러울 뿐이다.』

석 훈 <법정대 행정학과>

도서관 아래서

홍기훈

대학의 마지막 문이 좋아 비관하는 사람이, 너에 대하여 나는 아주 낙관한다. 너와 괴로운 책사들고 나를 도야할 자정으로 유사이래 정복자의 날카로운 함정에 귀 기울이었다. 그러나 교수같이 집에서 보내는 주말에 얽힘이 열강하는 출세론과 양저론에 별로 흥미가 없다. 나에게서 이미 네가 있으면서, 나는 나의 율법대로세상을 모시한다. 나의 눈을 통하여 더이상 귀여운 열망마라! 사람은 혼자만이 간직하고 싶은 비밀이 있다. 아무도 몰라 확인하면서 얼마나 너는 소중히 여기려나. 나와 침묵하는 대화로 타협한 진실들, 내가 매일같이 감추는 눈물들?...



<문과대 국문과>

투철하지 못한 작가정신이 초래한 아쉬운 영상들 뚜렷한 방향설정의 결핍과 상식적인 수준에 그쳐

어스름한 달빛 아래 오직 복수의 일념으로 가정파괴를 추종하는 고독한 인간사냥꾼을 그린 영화, 「달빛 사냥꾼」은 신예인 송수 감독의 두번째 작품이다. 「달빛 사냥꾼」에는 흔히 한 국영화에서 볼수 있는 황당무계한 사건설정이나 어처구니없는 비약 등이 「달빛 사냥꾼」에 이르러서는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 도입부에서부터 과감한 컷팅

을 날카롭게 주인공의 의식을 지나치게 설명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 감독의 자아도취는 보이는 것으로 하여금 식상하게 만들 뿐이다. 「달빛 사냥꾼」에는 흔히 한 국영화에서 볼수 있는 황당무계한 사건설정이나 어처구니없는 비약 등이 「달빛 사냥꾼」에 이르러서는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 도입부에서부터 과감한 컷팅

을 날카롭게 주인공의 의식을 지나치게 설명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 감독의 자아도취는 보이는 것으로 하여금 식상하게 만들 뿐이다. 「달빛 사냥꾼」에는 흔히 한 국영화에서 볼수 있는 황당무계한 사건설정이나 어처구니없는 비약 등이 「달빛 사냥꾼」에 이르러서는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 도입부에서부터 과감한 컷팅

을 날카롭게 주인공의 의식을 지나치게 설명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 감독의 자아도취는 보이는 것으로 하여금 식상하게 만들 뿐이다. 「달빛 사냥꾼」에는 흔히 한 국영화에서 볼수 있는 황당무계한 사건설정이나 어처구니없는 비약 등이 「달빛 사냥꾼」에 이르러서는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 도입부에서부터 과감한 컷팅

영화 감상

으로 속도감을 발생시키며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전체적으로 무리였을 뿐, 가정파괴범이 독버섯 처럼 고개를 쳐드는 현상사에 대한 사회적 관점에서 원인분석,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 제시 등이 극적 구성속에 하나의 인자 노릇을 담당하여 지리멸렬한 감을 안겨주지만 적절하고 안정된 카메라 앵글과 구도를 통한 뛰어난 영상미 창출은 박스배기사의 연속한 기량을 엿볼수 있다. 사회적인 테마를 부각시킨 영화인 만큼 감독이 작품인물에 영합하거나 동화되기 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냉철한 안목이 요구된다. 그런 면에서 볼때, 송수 감독은 신인답지 않게 시종일관 차분한 흐름을 유지해 나갔으나 플래시백

을 날카롭게 주인공의 의식을 지나치게 설명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 감독의 자아도취는 보이는 것으로 하여금 식상하게 만들 뿐이다. 「달빛 사냥꾼」에는 흔히 한 국영화에서 볼수 있는 황당무계한 사건설정이나 어처구니없는 비약 등이 「달빛 사냥꾼」에 이르러서는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 도입부에서부터 과감한 컷팅

을 날카롭게 주인공의 의식을 지나치게 설명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 감독의 자아도취는 보이는 것으로 하여금 식상하게 만들 뿐이다. 「달빛 사냥꾼」에는 흔히 한 국영화에서 볼수 있는 황당무계한 사건설정이나 어처구니없는 비약 등이 「달빛 사냥꾼」에 이르러서는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 도입부에서부터 과감한 컷팅

을 날카롭게 주인공의 의식을 지나치게 설명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 감독의 자아도취는 보이는 것으로 하여금 식상하게 만들 뿐이다. 「달빛 사냥꾼」에는 흔히 한 국영화에서 볼수 있는 황당무계한 사건설정이나 어처구니없는 비약 등이 「달빛 사냥꾼」에 이르러서는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 도입부에서부터 과감한 컷팅

문화소식

부터 5월31일까지 강석경 원작 일일연극의 「순속의 방」 공연을 산울림소극장무대에 올린다. 공연시간은 평일 오후 4시, 7시30분, 하루 2회공연.

「한울날 앞날 마당놀이」 내달 4일, 천도교서교구앞마당서 천도교 서울교구 청년회에서는 내달 4일 오후 5시에 「한울날 앞날 마당놀이」를 천도교 서울교구 앞마당에서 연다.

「87상반기 상설극악공연」 5월31일까지 산울림 소극장에서 극단 산울림에서는 내달 3일

부터 5월31일까지 강석경 원작 일일연극의 「순속의 방」 공연을 산울림소극장무대에 올린다. 공연시간은 평일 오후 4시, 7시30분, 하루 2회공연.

「한울날 앞날 마당놀이」 내달 4일, 천도교서교구앞마당서 천도교 서울교구 청년회에서는 내달 4일 오후 5시에 「한울날 앞날 마당놀이」를 천도교 서울교구 앞마당에서 연다.

「87상반기 상설극악공연」 5월31일까지 산울림 소극장에서 극단 산울림에서는 내달 3일

부터 5월31일까지 강석경 원작 일일연극의 「순속의 방」 공연을 산울림소극장무대에 올린다. 공연시간은 평일 오후 4시, 7시30분, 하루 2회공연.

「한울날 앞날 마당놀이」 내달 4일, 천도교서교구앞마당서 천도교 서울교구 청년회에서는 내달 4일 오후 5시에 「한울날 앞날 마당놀이」를 천도교 서울교구 앞마당에서 연다.

「87상반기 상설극악공연」 5월31일까지 산울림 소극장에서 극단 산울림에서는 내달 3일

글 좀 쓰시다

과 「학술연구」와의 합숙관계를 고려해 볼때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우려를 유발한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두학생의 「漢四郡의 위치」에 대한 紙上論爭(본지 946, 947, 948)은 뛰어난 고구려의 일이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학생의 연구결과가 본지에 게재된 후, 이를 읽은 다른 의견의 학생이 자신의 글을 게재해 줄것을 요청해 왔던 것이다. 결국 양쪽

의 의견을 요약·정리하는 형태로 이 논쟁은 끝을 맺었지만, 글을 쓰지않은 학생들에게 조그만 자극이나 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단지 아쉬움이 남는다면 본교 교수진이나 학계 전문가에게 의뢰, 이 논쟁을 학계의 논쟁으로 좀 더 확대·발전시키지 못한 것일 것이다. 글을 쓰기 기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학문하는 태도의 반영이라면 문제는 한층 심각해진다. 이곳이 최고의 지성인이 모여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학문활동을 규제하는 의외조건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극복해야 할 대상이며, 문제는 연구하고 글을 쓰는 본인의 의지와 자성의 문제인 것이다. 연구실·도서관의 개진 등을 바라보는 마음은 누구나 안타까울 뿐이다.

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 신문제가 어려워 늘어놓는 푸념만은 아니다.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교수·학생을 막론하고 도무지 글쓰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과연 대학 4년동안 「논문다운 논문」 하나 제대로 쓰고 졸업하는 학생이 몇이나 될런지 자문해 볼 일이다. 「글」

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 신문제가 어려워 늘어놓는 푸념만은 아니다.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교수·학생을 막론하고 도무지 글쓰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과연 대학 4년동안 「논문다운 논문」 하나 제대로 쓰고 졸업하는 학생이 몇이나 될런지 자문해 볼 일이다. 「글」

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 신문제가 어려워 늘어놓는 푸념만은 아니다.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교수·학생을 막론하고 도무지 글쓰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과연 대학 4년동안 「논문다운 논문」 하나 제대로 쓰고 졸업하는 학생이 몇이나 될런지 자문해 볼 일이다. 「글」

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 신문제가 어려워 늘어놓는 푸념만은 아니다.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교수·학생을 막론하고 도무지 글쓰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과연 대학 4년동안 「논문다운 논문」 하나 제대로 쓰고 졸업하는 학생이 몇이나 될런지 자문해 볼 일이다. 「글」

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 신문제가 어려워 늘어놓는 푸념만은 아니다.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교수·학생을 막론하고 도무지 글쓰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과연 대학 4년동안 「논문다운 논문」 하나 제대로 쓰고 졸업하는 학생이 몇이나 될런지 자문해 볼 일이다. 「글」

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 신문제가 어려워 늘어놓는 푸념만은 아니다.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교수·학생을 막론하고 도무지 글쓰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과연 대학 4년동안 「논문다운 논문」 하나 제대로 쓰고 졸업하는 학생이 몇이나 될런지 자문해 볼 일이다. 「글」

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 신문제가 어려워 늘어놓는 푸념만은 아니다.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교수·학생을 막론하고 도무지 글쓰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과연 대학 4년동안 「논문다운 논문」 하나 제대로 쓰고 졸업하는 학생이 몇이나 될런지 자문해 볼 일이다. 「글」

人間·技術·未來

력키금성

技術을 심는다, 未來를 거둔다

고분자화학·정밀화학·유전공학—첨단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력키

력키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눈으로 바라보는 21세기 력키는 기술을 심어 미래를 거둔다. 첨단소재의 무한한 영역을 넓혀가는 고분자화학에서, 자원부족을 고부가가치 기술로 극복하는 정밀화학에서, 생명공학과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유전공학에서, 력키는 첨단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여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도전만이 미래를 앞당깁니다.

고분자화학
최보대 강하고 가벼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개발로 미래의 신소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밀화학
무공해능력, 염료 등의 고부가가치 화학산업에서 기술의 결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 생명의 무한한 영역을 탐구하고 있습니다.